

치매 노인 'ICT 마을 공동체'가 돌본다

〈정보통신기술〉

용봉동 노인 실종 알림서비스

앱만 깔면 누구나 참여 가능

비콘 활용 마을 콘텐츠 발굴도

광주시 북구 용봉동에 사는 박종자씨의 어머니는 치매를 앓고 있다. 직장에 다니는 박씨는 늘 마음이 편치 않다. 어머니만 집에 두고 나가야 하는 탓이다. 그런데 걱정이 해결됐다.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한 '용봉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 덕분이다.

이 사업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실종된 치매노인을 찾아주는 사업이다. 시스템은 이렇다. '박씨는 어머니 팔에 비콘단말기 달았다. 어머니가 외출했다가 집을 찾지 못할 우려를 대비해서다. 어느날 박씨가 퇴근했는데 어머니가 보이지 않았다. 아찔했다. 비콘단말기가 퍼득 생각났다. 스마트폰 앱(용봉마을)에 '실종 신고'를 했다. '용봉마을'에 신고하면 이 앱을 설치한 모든 이용자들에게 어머니의 신상정보와 함

? 비콘 반경 50~70m 범위 안에 있는 사용자의 위치를 찾아 메시지를 전송해주는 블루투스 기반의 스마트폰 근거리 통신 기술이다. 이용자가 이 비콘을 설치한 매장 앞을 지나갈 때 이용자 스마트폰 앱을 통해 쿠폰 등의 알림이 울리는 방식이다.

깨 찾고 있다는 메시지가 전달된다. 그리고 앱 이용자가 실종된 어머니 주변 70m 내에 접근하면 비콘단말기의 센서가 작동해 이용자와 보호자인 아들 박씨에게 위치를 알려준다. 어머니를 찾은 것이다. 만약 박씨가 멀리있어 곧바로 가기 어렵다면 이용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보호해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다.

이 사업은 정보통신기술과 복지가 결합한 새로운 마을공동체 만들기다. 광주시 북구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K-ICT 내가 만드는 마을' 공모과제에 선정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말 '용봉마을 공동체 만들기'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올해 상반기

■용봉마을 공동돌봄 알림서비스

실종 노인 발생



치매노인 등 20명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하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은 미래창조과학부의 '마을 만들기'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북구는 전국 지자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15일 서울에서 우수사례 발표회를 연다.

비콘 기술은 유통업계 등에서 활용도가 높다. 롯데아울렛은 매장을 방문한 고객에게 환영 메시지와 매장지도, 소풍정보를 비콘서비스를 활용해 제공하고 있다. 수원야구장·인천공항 면세점 등에서도 고

객서비스에 비콘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니베아'가 어린이 보호·관찰용 앱을 출시해 바깥스 시즌 큰 호응을 얻었다. 아이들의 팔에 수중비콘 팔찌를 차고 보호자는 앱을 다운받아 세이프존을 설정하면, 아이가 그 구역을 벗어나는 순간 보호자의 스마트폰에 알림이 울리는 앱이다.

북구는 치매노인에 시범 적용한 뒤 지역경제 활성화 등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용봉마을 한 음식점에서 반값할인 행사를 하는데 그 주변에 가면 행사 안내를 스마트폰에 알려주는 방식이다.

북구는 정보통신기술과 지역경제가 융합하면 다양한 형태의 마을만들기 모델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재익 북구 정보기획계장은 "최신 정보기술을 활용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추진했다"며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고 고민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선순환 패러다임을 구축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 서구보건소 운동 강좌

3월 말~10월 4개 운영

광주시 서구는 구청이 운영 중인 운동프로그램에 참여할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운동프로그램은 아쿠아로빅 수중운동, 배틀레렘 탈출교실, 체력가득행복가득, 관절도 내마음처럼 등 4개 프로그램이다.

염주종합체육관 실내수영장, 서구청 민방위교육장, 서구노인종합복지관, 금호종합사회복지관 등 프로그램별로 운영되며 선착순 모집한다.

운동프로그램 운영 기간은 오는 3월 말부터 시작으로 10월까지다.

참여자들은 전문 강사를 통해 아쿠아로빅, 필라테스, 요가 등 다양한 운동을 익히며 신체 단련을 할 수 있다고 서구는 설명했다.

또 사전·사후로 진행되는 체지방검사 및 대사증후군검사 등을 통해 건강검사를 받을 수 있다.

서구 관계자는 "근력강화 운동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의 운동 실천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대사증후군 및 만성질환 예방 효과도 크다"며 "앞으로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프로그램 참여 및 문의는 서구보건소(062-350-4133)로 하면 된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신나는 숲속 모험 광주시 남구는 숲속 체험 활동을 통해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을 예방하고 어린이들의 창의력을 길러주기 위해 숲속 다람쥐 교실을 운영한다. 3월부터 11월까지 제봉산에서 매월 한차례 열린다. 참가 희망자는 구청 공원녹지과 산림팀(607-3840)에 문의하면 된다. 지난해 열린 숲속 다람쥐 교실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즐겁게 뛰어노는 장면.

/*광주시 남구 제공

광주 서구, 스마트폰으로 비만관리 해드려요

광주 서구는 모바일을 통해 건강생활습관 개선과 비만관리를 지원하는 '스마트 특목 비만관리 서비스' 이용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서비스 대상은 서구 주민으로 체지방률 남자 20%, 여자 28% 이상인 20~50대 성인 남녀다. 서구는 총 150명을 모집한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우선 스마트폰 사용이 가능해야하고 서구건강체력센터에서 체지방 및 대사증후군 항목 등 검진결과 판정수치를 확인해야 한다.

서비스 참여 주민들은 모바일 앱을 통해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등 전문인력이 제공한 정보를 통해 맞춤형 비만관리

를 할 수 있게 된다고 서구는 설명했다.

전문가가 매일 사용자에게 맞춰 미션 제공, 식단을 기록하고 칼로리 관리, 활동량 측정, 그룹기능을 활용한 온라인 자조 모임 등 모바일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해 이용자 맞춤형 건강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서비스 신청 및 문의는 서구보건소(062-350-4132,4133)로 하면 된다.

/*김형호기자khh@kwangju.co.kr

엄마 93% "육아용품 물려받아 사용"

육아문화 과소비적 측면 있어...작은 돌잔치 공감

자녀를 둔 여성 10명 중 9명은 육아비용을 줄이고자 육아용품을 물려받아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최근 발표한 '2016 육아문화 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조사 대상 여성의 96.2%는 '육아문화가 다분히 과소비적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육아비용 줄이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응답자의 93%는 육아용품을 물려받아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75.3%는 중고 육아용품을 구매할 적 있었으며, 구매자의 88.2%가 육아비용에 큰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중고 육아용품을 구매해본 경우 가장 비용이 절약된 1순위 품목은 도서가 15.1%이며, 그 밖에 유모차 9.7%, 보행기 7.5%, 카시트 7.4%, 검옷 6.3%, 완구 6.2% 순으로 나타났다.

중고 육아용품은 온라인 중고 장터를 통한 구입 경험이 가장 많았고, 오프라인 중고 장터와 이웃, 친지를 통한 구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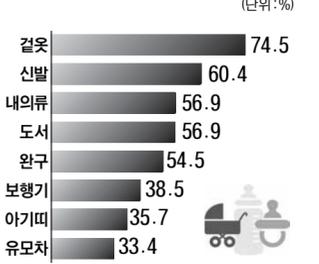
전체 응답자의 85.2%는 향후 중고 육아용품 구매 의사를 보여, 대부분 중고 육아용품 사용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자녀가 있는 응답자의 93%가 친인척, 직장동료, 친구 등으로부터 육아용품을 물려받아 자녀에게 이용하게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물려받아 사용하면서 가장 비용이 절약된 품목으로는 검옷 74.5%, 신발 60.4%, 내의류 56.9%, 도서 56.9%, 완구 54.5%, 보행기 38.5%, 아기띠 35.7%, 유모차 33.4%, 아기 이불 30.5% 순으로 나타났다.

육아용품 친인척(사촌형제 등)으로부터 물려받은 경험이 70.7%로 가장 많

■물려받기로 비용 절약한 육아용품



〈자료:여성가족부 '2016 육아문화 인식 조사'〉

았고, 직장동료 및 친구 34.5% 순으로 인 것으로 확인됐다.

육아용품을 물려받아 사용한 경험자 중 96.6%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비부모를 포함한 전체 응답자의 95.9%가 향후 육아용품을 물려받아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최근 작은결혼 문화와 더불어 작지만 의미있는 소규모 돌잔치를 하자는 분위기가 생겨나는 것에 긍정적으로 답한 이는 97%에 달했다. 이들 중 92%는 향후 작은 돌잔치를 치를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돌잔치의 규모의 축소 이유는 '주변에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47.1%. '의미 있는 가족만의 행사고 싶다'는 응답은 16.3%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화려한 돌잔치에 뒤따르는 비용 부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는 여가부가 육아정책연구소에 의뢰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현재 출산계획이 있거나 임신 중인 예비모와 만 9세 이하 자녀를 둔 어머니 총 120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광주 동구, 위기청소년 지원 24일까지 신청

생활비 월 50만원 내 지급

광주 동구는 위기상황으로 인해 사회·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위기청소년의 일탈을 사전에 예방하고 청소년들이 사회 속에서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생활·건강·학업·자립·상담·법률·청소년 활동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사업의 일환이다.

지원대상은 만 9세 이상부터 만 18세 이하 청소년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등이다.

생활·건강 지원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학업·자립·상담·법률·활동·기타 지원은 기준중위소득 72%이하하여야 한다. 생활비는 월 50만원, 자립비 36만원, 학업비 30만원, 상담비 20만원, 건강연 200만원, 기타 연 30만원 이내 범위에서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4일까지이며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등이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구청에서 심사·확정해 개별 통보한다. 문의는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여성청소년계(062-608-2671)로 하면 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부동산
중개법인

한국토지

경매/매매

풍암동 중심 상가

대지 400평, 건물 100평
매매가격 1,650,000,000

서구 동천동 공장 창고

대지 370평 **최저가 681,578,000**
건물 97평 **감평가 1,217,104,900**

서구 매월동 상가 사무실

대지 261평 **최저가 1,450,531,000**
건물 458평 **최고가 2,072,187,000**

동구 금동 오피스텔

대지 216평 **최저가 2,132,000,000**
건물 467평 **최고가 1,492,000,000**

화순 도곡 숙박시설

대지 980평 **최저가 992,958,000**
건물 1,296평 **최고가 3,787,938,000**

북구 중흥동 숙박시설

대지 91평 **최저가 425,000,000**
건물 340평 **최고가 948,794,100**

백운동 빌라주택

대지 66평 **최저가 174,499,000**
건물 146평 **최고가 311,605,000**

22평형 6구(수익성 아주좋음)

대지 110평, 건물 124평 **매매 5억2천만원**
세대당 용자 6천만원 월세 45만원

제일오피스텔 29평

보증금 500만원 **감평가 9,000만원**
월세 25~40만원 **매매가 6,300만원**

010-8559-8905 이용국 팀장

공인중개사 부동산경,공매컨설팅
초보자 00명 모집 062)232-9994

010-3070-2147 유 여사